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b)

쫄림쫄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은 겨울 날씨로 추운 2월, 캄보디아 대학생들은 중간고사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별과제를 하느라 친구들과 기독교학생회 학생센터를 찾는 학생들도 있는데,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기도모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학업과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가정의 상처와 불안한 미래로 고단한 젊음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빛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성은 이야기

####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외국의 떠들썩한 명절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소노코(기독교학생회) 학생 센터에서 성탄 모임을 가졌습니다. 준비한 음식이 모자랐을 정도로 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도예 응답하신 은혜를 인해 감사드렸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학생들이 즐겁게 드라마를 준비해 보였고, 간사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과 기독교학생운동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소망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기독교 모임에 나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접촉한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이 꾸준히 연결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캠퍼스에서도 성탄 모임을 가졌습니다. 프놈펜 왕립대학(RUPP) 소노코 학생들이 친구들을 초대해 복음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하며 직접 헌금을 모으고 스스로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왕립법경제대학(RULE)에서는 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ELI 단체 선교사들과 협력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지고, 학생들을 접촉하였습니다. 학교 내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었고, 메시지도 제한적이었지만, 성탄 이야기를 처음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ELI와 꾸준히 협력 관계를 가지고 학생들과의 접촉점을 찾고 있는데 좋은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노코 크리스마스 학생 모임



왕립법경제대학 ELI 성탄 모임



학생 사역팀 동역자들과 함께



동네 이웃들과 성탄 나눔

특히 올해는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준비해 동네에서 성탄 모임을 가졌는데, 이웃들과 복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옆 집 이웃들도 초대하였는데, 어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와서 성탄절의 의미와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모든 기회마다 사랑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부르심의 은혜

간사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학생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을 깊이 나누며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캄보디아 학생 사역을 섬기며 리더십 역할을 했던 미국 IVF 스테파니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갈등과 시련 가운데 겸손히 공동체를 섬겨 온 그를 대신해 제가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두고 기도하는 동안 많은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마3:17)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사역을 시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깊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현지 간사 리더십을 격려하고 현지 주도 학생운동을 돕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겸손히 배우고 사랑하고 중보하며, 말씀으로 간사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수련회 및 학생사역회의



일본 KGK 기독학생회와 함께

소노코 이사회를 구성하고 2월말 처음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학생 사역이 현지 주도의 운동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임 선교사들이 많은 수고를 기울였습니다. 이사로 세워진 다섯 명 모두 캄보디아 학생운동을 오랫동안 사랑해 온 특별한 분들입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학생운동의 비전과 이사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캠퍼스에서 소그룹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리더들을 세우고자 훈련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학생들과 접촉하고 복음전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인터스쿨(Inter School)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앞드려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 보기를 원합니다.

### 여주 이야기

학생 사역의 리더십을 두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처럼 저들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사역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원래는 故 쫘란 간사가 현지 총무의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던 자리라 더욱 부담이 컸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처럼, 힘을 빼고 겸손히 사랑하기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역으로 바빠지기에 저는 아내로서 남편을 더 돕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더욱 신경 써서 돌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감사하게 건강히 잘 지냅니다. 의진은 학교에서 반별로 한 주에 한 번 선생님이 주는 상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서 좀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떡함이나 사람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진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려주고 싶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 지혜와 존귀함을 덧입혀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하진이는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 가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을 편안해 하고, 정서적으로도 타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히 지냅니다. 이에 비하면 제가 이곳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분 닮아 넉넉한 사랑을 주시기를, 섬김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긴 겨울동안 지치지 않으시고 마음과 몸에 새 힘 얻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감사 제목

- 성탄절 모임을 통해 학생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
- 간사수련회를 통해 사역자들이 서로 깊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
- 부르심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주심을 감사.
-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잘 적응하고, 꾸준히 믿음이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

#### 기도 제목

- 새롭게 리더십을 맡게 되었는데 거룩하고 겸손하게 학생 사역을 섬기도록.
- 언어수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꾸준히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 매일 오토바이로 이동할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의진이 알려지 비염이 치유되고, 하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 1년차 언어 평가(2월 20일/27일)를 통해 앞으로 언어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잘 점검 받도록.
- 양여주 선교사 부모님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 학생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 소노코 현지 간사들(페레악, 닷, 사오피어, 시나)이 꾸준히 자라고 성령 충만하도록.
- 리더십의 변화 가운데 영적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부흥을 주시도록.
- 소노코 첫 번째 이사회(2월 24일)를 통해 학생 사역의 비전이 나뉘지고 이사회가 잘 자리잡힐 수 있도록.
- 디모데 훈련(3월 5-9일)을 통해 간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새롭게 하시도록.
-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을 초청하는 인터스쿨(3월 17일)에서 자아상 주제로 강의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 학생 리더 훈련 계획이 잘 세워지고, 캠퍼스 소그룹 모임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 사역을 마치고 3월 말에 귀국하는 스테파니 간사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제목

- 의료 시설의 부족과 비싼 의료비 때문에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많은 빚을 진 채로 가난과 위협에 내몰리는데,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보건/의료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 중국 새해 명절 기간 집집마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많았는데, 영적 어두움과 우상숭배에 매여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